

사설

탁발과 고통분담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자비의 탁발'이 봉행된다. 이번 탁발은 일반제일인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시의적절한 종단의 결단이며 부처님의 자비행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의 넓고 깊은 8만4천 법문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모두 욕심을 줄이고 육바라밀의 실천강령을 구현할 때 밝고 희망이 넘치는 불국정도가 앞당겨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6·25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남쪽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체제에서 경제파탄에 직면해 있다. 한편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살고 있는 북쪽은 식량난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한쪽은 달러원조를, 다른 한쪽은 식량원조를 외국에 요청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남북한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운 사회 경제적 고통을 덜고 출가수행자로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마련된 한민족들이 탁발봉사에 참여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가 위태로울 때 기꺼이 목숨을 던져 나라를 구한 큰스님들을 비롯한 불교선각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호국불교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된다.

이번 자비의 탁발을 계기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우선 현권은 이러한 불교계의 호국, 구국정신의 실천이 담긴 뜻을 잘 이해하고 적극 후원해 주어야 한다. 진정한 국민정부로서 국민의 소망인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무능과 부패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영삼정권 기간은 실제로 남북관계의 공백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독단적인 관료적 통치분야에서도 연출

되었던 것이다.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은 거의 겨울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극히 제한된 환경속에서 불교계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식량돕기운동이 겨우 맥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제 김대중대통령이 여러차례 강조한 바대로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기구들의 남북한교류와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불교계는 보다 실질적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한민족공동체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지금 불교계는 여러 곳에 고통받는 실천자를 위한 자비의 쉼터를 마련하고 귀농학교 개설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좀더 실질적인 구호대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휴식하는 곳을 제공하는데서 한발 나아가 실질자들에게 새로운 의지를 갖게 하고 재교육을 통해서 새 출발을 하게 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대안사회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재발등 가진 자들에게 깨달음의 사회화를 통한 회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불교계가 지원하는 북한국수공장의 건설은 통일을 향한 한민족공동체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번 탁발봉사가 원만히 회향되어 이 공장이 예정대로 3월부터 가동되어 북한동포들이 남북불자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국수로 다소나마 허기를 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제 우리 모두는 말로만 아니라 실천으로 자비와 보시행에 적극 동참하자. 어려운 때일수록 이기심을 과감히 버리고 밝은 광명의 사회, 민주 통일정도를 위해 서로서로 등불이 되자. 한량없는 보시의 공덕을 쌓는 일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렸다.

건축불사 자제

비구니회관 착공 연기
청주 관음사 공사중단

IMF영향 원목·철근 등 값올라

원목 철근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자재를 사용하는 건축 불사, 고환을 IMF체제하에서 건축 비용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가운데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 관음사(주지 이두) 등이 추진중인 건축불사의 공기(工期)를 조정하고 자재를 바꾸는 등 IMF 시대를 대처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는 지난 1월 임원회의를 열고 비구니회관 착공 연기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결정은 환율과 금리 상승의 여파로 자재 원가가 평균 7.5%나 상승, 비구니

회관 총 건축비도 당초 예상보다 33%나 오른 80여원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비구니회관은 96년부터 전국비구니회 소속 사찰과 재가 후회원회 천수천안회가 기금 조성에 헌신했던 비구니스님들의 숙원 사업이다.

조계종 총무원의 종합불교회관도 올해 기공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난산 호국연무사의 경우 유사체 건립이 전면 중단된 상태.

청주시 관음사도 천불전 건축 공기를 조정했다. 청주시

불자들이 수행처로 사용할 천불전은 90평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

현진스님은 "경제하락으로 시주금이 줄었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해 천불전 총 공사비가 30% 이상 추가됐다"며 "건축 공정을 신속적으로 조정하면서 건설경기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94년부터 법당과 복지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명사 금강정사(주지 벽암)도 당초 목재로 지으려던 법당을 시멘트로 짓기로 했다.

벽암스님은 "수입 자재인 원목의 가격 상승으로 법당 건축 재료를 원목에서 시멘트로 바

꾸었다"며 "값싼 자재로 공사비를 낮추었지만 경기가 더욱 침체되면 완공시기를 5년 더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환율 상승으로 철근 시멘트 원목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6~9% 인상됐고, 고급리로 증가한 건설업에 부채도 공사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당분간 건축비 상승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건축불사용 자재에 자제 수입에 소용되는 외화 유출을 막고,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불사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종욱·김지연 기자)



문화관광부 장관에 신낙균씨

불자 2명 입학

새정부 내각의 문화관광부 장관에 신낙균씨가 선임됐다. 신낙균씨는 이화여대 신학과를 졸업했으며 15대 국회에서 여성특위 위원장을 지냈다.

불자로는 보건복지부 중앙자랑관과 산업자원부 박태영장관 등 2명이 등용됐다. 각료들의 종교 분포는 개신교 8명, 천주교 4명, 불교 2명, 무교 4명 등인 것으로 파악.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종교 편향이란 지적이다.

특별 구족계산림 8월 개설

조계종 870명 대상 마지막 기회 될듯

조계종은 62년~83년 사이에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 비구·비구니계를 받지 않은 8백 7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구족계수계산림을 개설한다.

이번 특별수계산림은 8월 17일과 18일 통도사 금강계단에

서 봉행된다. 조계종은 "승남 15세, 나이 40세 이상의 사미(나)중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종무와 포교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아 계단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구족계수계산림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번 산림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미(나)의 참여를 구했다.

강북장애인복지관·행화어린이집·옥수복지관 등 8곳 속속 개원

불교복지사업 '꽃피는 춘삼월'

새 봄을 맞아 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들이 잇따라 개원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교계 최초로 수탁·직영하는 강북장애인복지관을 4월 10일 개관하는 등 수탁시설을 잇

달라 개원하고 있다. △행화어린이집(원장 임아화)은 3일 △서초초어린이집(원장 이재희)은 6일 개원했으며,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24일 △과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자승)은 26일 개원 예정이며, 성내

삼어린이집(원장 박태인)은 개원을 앞두고 대대적인 보수공사 중이다. 이들은 모두 사회복지재단이 지난해 11월 위탁받은 복지시설. <관원기사 3면> 이밖에 연꽃마을이 위탁받은 인천노인복지회관 경로병원과 경로식당이 17일경 개원하며, 승가원 부설 상락원(소장 법등)은 3월중에 개원한다. 바야흐로 불교복지사업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어 가는 느낌이다.

특히 4월 10일 개관을 앞둔 강북장애인복지관은 직할시설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의 전문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종무 결산보고 받아 조계종 원로회의 상건례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해안)는 9일 오후 2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지난해 말 새로 추대된 신임 원로의원들과 상건례를 가졌다. 이날 원로의원들은 총무원으로부터 지난해 종무결산 보고를 받았다.

조계종 행자교육 185명 송광사 입방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제14기 행자교육을 5일~27일까지 제21교구 송광사(주지 현고)에서 실시한다. 이번 행자교육에는 총 199명이 지원, 서류심사 등을 거쳐 총 185명이 입방했다. 남행자 104명, 여행자 81명이다.

종교계 3·1절 행사 다채

3·1운동 기념사업회(이사장 이원범)와 대각회(회장 권덕)는 1일 오전 8시 탑골공원에서 도문(대각사 주지), 보광(동국대교수)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국선열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이어 파고다극장에서는 김광식박사(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용성스님과 독립운동' 특별강연회가 열렸다. 한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회장 월주)는 2월 28

일 오전 10시 서울 천도교회관에서 국민극복을 위한 시국강연회를 가졌다.

이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탑골공원까지 시가행진을 갖고, '정신과 물질이 조화된 경신운동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구국기원 대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불교·천주교·원불교의 여성성직자들의 모임 삼소회 합창단의 공연이 눈길을 끌었다.



3.1절 기념 국민극복을 위한 구국기도, 대국민선언문 발표 주최: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3·1절 기념 국민극복을 위한 대국민선언문 발표회가 끝난후 서울 천도교회관에서 탑골공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IMF 극복 실천강령 발표 잇달아

사찰·신행단체 호텔행사 안하기 등 전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이 직지사, 동산반야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서울 불교청년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청화)는 2월25일 정기총회에서 호텔 등 외부행사 안하기, 고

급승용차 안타기 등 생활지침을 마련,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는 IMF극복 7대 실천공약을 내놨다. △법회 후 2부 모임 안 갖기 △대중교통 이용 등 5개 △금모으기에 동참하기 △한집

한 등 끄기 △점조사비 줄이기 △의식 하지 않기 △재활용품 활용하기 등이다.

동산반야회는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국산품 및 우리문화 애용운동 △소비절약운동 △의식개혁운동 △직장·사업장에서의 절약운동 △간소한 관혼상제치르기 운동 등 5개 분야에 걸친 108개항 실천운동

을 펼치고 있다.

또 5천여부의 전단지 제작해 전국 각 사찰 및 사회단체 등에 배포, 시민운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직지사(주지 녹인)도 '부처님 말씀대로 살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처님상을 공경하고 정법을 배우자 △꾸준히 기도하고 정진하자 △공부를 나누며 내가 먼저 배울자며 IMF 위기 극복을 위해 불자들이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만평

현대만평

불자의 자전모험



산 오를때

내려올때

쓰레기

737-8881

승가 위계 확립을 위한

담 · 화 · 문

조계종은 1천6백여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종단이 부처님의 정법과 한국불교의 전통을 확립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불교의 청정성과 계율정신이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승단을 구성하실 때 계율로 위계를 세우시고 깨달음으로 法階를 정하시어 불교의 질서를 유지하셨습니다. 불교는 화합의 공동체이며 '人天의 師表'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불교는 위계와 위상이 불분명하고 불교가 정체되어 재가신도와 극민들에게 인식을 혼돈을 빚고 있습니다. 참신한 불교의 기풍을 되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위계정서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불교 공동체의 발전과 다종교사회 속에서 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과제입니다.

종단은 지난 불기 2538(94)년 개혁불사를 통해 불교교육체계를 확립하였지만, 불교의 위계와 관련된 문제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종단의 승품 직장을 위해서 불교교육의 강화뿐만 아니라 위계와 위상이 엄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불기 2541년 총무원과 교육원은 몇 차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초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끝에 사미와 사미니의 직장과 신분증에 관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원로대덕스님들의 자문과 고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총무원과 교육원은 불기 2542년도부터 승품의 직장과 僧伽의 위계 확립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사미·사미니의 명칭과 직제, 그리고 신분증 제도의 개선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사미·사미니계 수지자의 명칭은 '사미(沙彌)'와 '사미니(沙彌尼)'로 하며, '스님' 호칭은 구족계 수지자로 한다.
2. 사미·사미니 직제는
 - 1) 동방·두루마기는 동정과 소매, 장삼은 동정, 적삼은 깃과 소매에 가사색(밤색)띠를 두른다.
 - 2) 불기 2542('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적용대상은 불기 2539('95)년 1월 1일 이후 사미·사미니계 수지자로 한다.
3. 사미·사미니계 제도는
 - 1) 불기 2541('97)년 제13기 행자교육 이수 후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부터 적용한다.
 - 2) 사미·사미니계의 유효기간은 수계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만료 즉시 총무원 총무부에서 갱신하여야 한다.
 - 3) 유효기간 내에 종단 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은 사미·사미니에게는 입학할 때까지 신분증 갱신과 각종 증명원 발급을 보류한다.

종도 계위에서는 曹溪宗 僧伽의 위계 확립을 위한 이 제도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2('98)년 2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 월 주
교육원장 성 암 도